

- 2면 인천 공단노동자 실태조사, “근로기준법부터 준수해야”
- 3면 우리네 맛집 / 충주 북서울해장국
- 4면 바지락 만화 / 화가 많은 신입
- 5면 실전 노동법 / 공휴일은 유급휴일, 임금 받고 쉬자
- 6면 전국 소식 / 대구, 인천, 반월시화, 부산
- 7면 노동안전 칼럼 / 청년노동자 여섯 명은 왜 실명했는가
- 8면 산업이슈 칼럼 / 자동차 산업 거대한 전환, 금속노조와 준비합시다



바지락樂

바꿀 건 바꾸고 지킬 건 지키고 즐겁게 살자

2021년 3월호

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 1811-9509

바지락을 네는 사람들



오늘은 <바지락>을 나눠주는 날이라 평소보다 더 서둘러 퇴근했습니다. 퇴근 시간 피크타임에 30분만 늦어도 거리는 금방 행해지거든요. 저녁 6시 30분, 인천 동암역 2번 출구 앞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추운 날씨 탓이겠지만 주머니 깊숙이 꽂혀있는 손들이 야박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훌훌 지나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현타가 오기도 하죠. 연속해서 몇 번을 퇴짜 맞고 나면 멘붕이 옵니다. ‘<바지락>을 못 받은 당신이 손해지 내가 손해냐’ 정신승리도 해봅니다. 그래도 힐끗 보고 무심한 듯 던지는 “수고하세요”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퇴근길 들뜬 발걸음을 보노라면 괜스레 마음이 같이 들뜨습니다. 남은 <바지락> 신문이 줄수록 발도 자꾸 달싹입니다. 우리도 얼른 퇴근하고 싶거든요. 누가 이렇게 애써가며 <바지락>을 나눠주고 있는지 조금은 알아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인천 공단노동자들과 함께하고픈 민주노총 금속노조 인천지부 조합원들입니다.

코로나19 시기 인천지역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설문조사

- 조사 기간 : 10월 6일(화) ~ 11월 6일(금)
- 조사 장소: 인천지역 주요 공단 및 역사
- 설문 참여자 : 441개(직접 202부, 온라인 239부)



코로나 19 시대 가장 필요한 정책은 해고금지

금속노조 인천지부, 인천 공단노동자 대상 실태조사 벌여

경험한 적 없던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나라 안팎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고용유지대책, 방역대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공단노동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확대미조직위원회는 민주노총 인천본부 미조직비정 규위원회와 함께 2020년 10월 6일부터 11월 6일까지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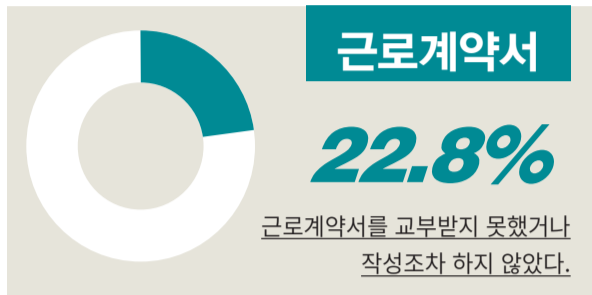
달 동안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인천 부평, 주안, 남동, 검단, 서부 등 주요 공단과 주요 지하철 역사에서 시행했다. 모두 441명의 노동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제조업 노동자를 포함해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가 설문조사에 응했다.

▶ 2면으로 이어짐

인천 작은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부터 준수해야”

근로기준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 열악한 노동환경 뚜렷이 드러나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다양해



사업주는 노동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두 부 가운데 한 부를 노동자에게 주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 공단노동자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의 22.8%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심지어 작성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다양하게 드러났다. 각종 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퇴근 후 업무지시와 같은 사례가 많았다. 법 위반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다수였다. 응답자의 80%가 정규직 노동자 월 평균임금 323만 원보다 적게 받았

다. 특히 30.9%의 응답자가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 노동법 위반 내용별 응답수(명)

위반내용	건수	위반내용	건수
임금체불	40	휴게 시간 미부여	78
최저임금 위반	22	부당해고	47
주휴 수당 미지급	47	퇴근 후 업무지시	66
연장 수당 미지급	57	산재 미처리	27
퇴직금 미지급	23	연차수당 미지급	75

2019년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한 폭언, 폭행,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 폭언, 폭행, 성희롱, 괴롭힘 응답수(명)

폭언	60	성희롱·추행	22
폭행	7	직장 내 괴롭힘	45

□ 폭언, 폭행, 성희롱, 괴롭힘을 누구로부터 당했나요?

상급자(선임)	28	고객·고객사	6
사업자(대표)	9	동료	4
관리자	7	수급대상자·보호자	3

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은 제조업에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위 주체는 주로 조장, 반장 같은 중간관리자였다.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고, 예방 교육이 필수 교육이 됐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인격 무시와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 정부지원대책 적용은 미흡, 가장 필요한 정책은 ‘해고금지’

□ 코로나 피해사례

노동시간 감소(78명) > 연차 강요(62명) > 구조조정(51명) > 무급휴업(48명) 순

□ 코로나 정부지원대책을 받았다는 응답은 30% 수준

무급휴직노동자 생활안정지원(44명) > 실업급여(32명) > 특고·프리랜서생활안정지원(24명) 순

□ 고용위기 정부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것

노동자해고금지(52.2%) > 실질소득감소긴급지원(50.3%) 순

□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사회대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

실질소득감소긴급지원(50.3%) > 고용유지정책강화(52.1%) > 공공의료확대(42.1%) 순

노동자에게 코로나 19 감염보다 두려운 일은 일자리를 잃는 것이다. 설문 응답 노동자들은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노동자 해고금지(52.2%)와 실직·소득 감소 시 긴급지원(50.3%)을 꼽았다. 고용에 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다. 응답자의 적지 않은 수가 실제로 고용위기를 경험했다. 연차 강요와 무급휴직 사례도 많았다. 한 30인 미만 제조업체는 일감이 없다는 이유

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며 무급으로 쉬라고 지시했다. 휴업을 유지하다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사업주도 있었다. 사업주 책임으로 휴업할 경우 법률상 휴업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많은 노동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무급동의서 작성을 강요하는 사례도 여러 건 발견했다.

코로나19 시기, 노동자 권리 확보를 위한 활동 계속돼야

정부 발표와 통계, 언론에 잡히지 않는 노동자의 고충과 사연이 있다. 이런 이야기와 사례를 사회에 드러내기 위해서 실태조사처럼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인천 공단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해 손 소독제 비치, 발열 체크 등 기본 방역은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

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노동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사업주들은 물량감소나 경영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지 않고,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코로나 19 확산 추이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또 다른 감염병이나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다수의

공단노동자가 노동조합은커녕 노사협의회조차 없어 코로나 19 위기를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다.

공단노동자 결의 든든한 금속노조가 되기 위해, 인천지부는 2021년 다음 스텝을 준비할 계획이다.

충주의 대표 맛집 복서울 해장국을 추천합니다

[우리네 맛집] 충주 복서울해장국



옛 충주 관아 앞 골목에 30년 전통의 해장국 전문 맛집인 복서울해장국이 숨어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시골 고향집에 온 듯합니다. 주인 할머니들이 손주를 반기듯 맞이 해주십니다. 이곳에 30년 전통 해장국집답

게 선지, 우거지, 뼈, 북어 콩나물, 다슬기 해장국이 있습니다. 이 중 선지, 우거지, 뼈 해장국은 오랜 시간 가마솥에서 푹 우려낸 사골 국물이 정말 일품입니다. 저는 우거지 해장국을 제일 좋아합니다.

요즘같이 쌀쌀한 겨울에만 내주는 송냥은 해장국이 나오기 전 추위에 언 몸을 녹이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최고의 애피타이저입니다. 후후 불며 송냥을 한 대접 비울 때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뜨끈뜨끈한 해장국이 나옵니다. 다진 양념장을 크게 한 숟가락 풀어 간을 하고, 큼직한 우거지로 쫄쫄한 선지를 싸 투박하게 썰어준 깍두기와 함께 먹다 보면 어느새 밥 한 공기 푹푹 해치워버립니다. 이쯤 되면 항상 변함없는 구수하고 담백한 맛에 이끌려 “한 그릇 더!”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민구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현대성우메탈지회



2021년 <바지락>에 독자 여러분의 사진과 글을 기고해주세요.

공단노동자 신문 <바지락>은 독자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면을 만들어 신문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만난 길고양이,
일하다 문득 눈에 들어온 내 낡은 안전화,
퇴근하기만을 기다렸다. 친구랑 마신 쏘맥 한 잔.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담은 사진과 사진에 대한 설명이나 관련한 이야기를 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진과 글의 주제나 분량은 자유입니다.

투고해주신 사진과 글은 <바지락> 기획단이 심사해 <바지락>에 실을 예정입니다. 선정된 원고의 투고자에게 60,000원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접수 방법

사진과 글을 <바지락> 카카오 채널로 보내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채널로
접수하는 방법



- ①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이나 채팅 검색창에 '#바지락'을 검색하면 #바지락 채널이 나옵니다. 채널 추가 후 채팅으로 글과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 ② 스마트폰이나 PC로 <http://bit.ly/bazirak> 에 접속하면 #바지락 채널이 뜹니다. 채널 추가 후 채팅으로 글과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접수 시

사진과 글 보낼 주소 : liandai21@naver.com

"화가 많은 신입"

그림: 재무



콜센터, 마트캐셔, 식품공장에
이제는 핸드폰 공장이다.

직업이란게
이렇게 자주 바뀔 수도 있다는걸
나는 몰랐는데...



위 만화를 보니 어떠셨어요? 우리 현장에 누가 꼭 떠오르진 않았나요?
오래 일할수록 그냥 그러려니, 혹은 불만이 생겨도 말조차 꺼내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새로 온 사람이 바른말, 내가 하고팠던 말을 해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딜 가든 옳은 소리 잘하는 사람은 제품에 지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지만, 그러다가는 절은 언제 나아지나요?
이 만화를 보며 꼭 떠올랐던 그 사람에게 오늘 커피 한 잔 사주면 어때요? 우리 오래 같이 일하자는 말 한마디도 같이요.

공휴일은 유급휴일, 임금 받고 쉬자

[실전 노동법] 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장,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빨간 날은 유급휴일

문 1 2021년 설 연휴, 쉬었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다고요?

답 1 그동안 공무원만 적용하던 관공서 공휴일이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유급휴일이 됐습니다. 유급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입니다. 다만 회사 규모에 따라 단계를 나눠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이번 설 연휴 사흘 동안 모두 유급휴일로 쉬었어야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로 일하는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도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30인 이상 사업장인지 헷갈리면 금속노조와 상담하세요.

문 2 설 연휴 외에 유급휴일이 있나요?

답 2 1년에 약 15일 정도로, 달력상 빨간 날과 거의 비슷합니다.

설과 추석의 연휴 사흘, 신정, 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공직선거법상 선거일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연휴 직후의 평일을 공휴일로 정하는데, 이를 대체공휴일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대체공휴일을 지정합니다.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이 외에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절(5월 1일)이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로 정한 날들도 유급휴일입니다.

문 3 30인 이상 사업장인데 설 연휴에 근무했다면?

답 3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 설 연휴에 근무를 시켰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나 검찰에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설 연휴 근무는 휴일 노동이므로 당연히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에 일했다면 최초 8시간은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를 더하여 받아야 합니다.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할 수 있고,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문 4 사업주가 설 연휴에 연차로 쉬라고 했나요? 설 연휴에 쉬고 왔더니 쥐도 새도 모르게 연차를 적용했나요?

답 4 불법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설 연휴 사흘을 당연히 유급휴일로 쉬어야 합니다. 노동할 의무가 없는 날, 즉 당연히 쉬는 날입니다. 이날에 개인의 연차 유급휴가를 써서 쉬라는 사업주의 행위는 사기입니다. 만약 연차를 쓰게 했다면, 사업주를 노동부에 연차 유급 휴가수당 체불과 연차휴가 강제소진으로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문 5 사업주가 물량 등을 이유로 설 연휴에 근무하고 다른 날짜에 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답 5 원칙상 안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다른 날짜를 지정해 휴일을 주기로 하는 휴일 대

체 합의를 미리 서면으로 했다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유급휴일을 임의변경해 근무를 시켰다면 당연히 휴일노동에 대한 가산 임금을 줘야 하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므로 형사처분도 가능합니다.

문 6 고소나 진정, 어렵지 않나요?

답 6 진정·고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진정서나 고소장을 작성해 노동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가서 작성·제출해도 되고 온라인이나 우편으로도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를 함께 당한 동료들과 같이하면 더 힘이 나겠지요?

진정이나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104조 2항 위반입니다.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침해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급휴일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회사는 바뀌지 않고,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작은 용기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와 상담하시면 도와드립니다.

노동부
온라인 진정,
어렵지 않아요.



노동부 민원마당(<https://minwon.moel.go.kr>)에 로그인하고,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검색 → 검색결과 중 '기타 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 클릭 → 진정 내용 입력 후 등록하면 끝.

금속노조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활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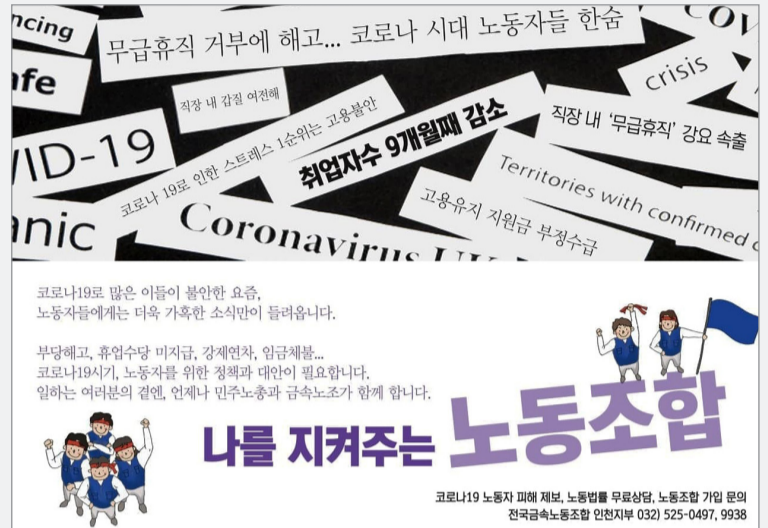
[전국 소식] 대구, 인천, 반월시화, 부산

대구 지하철 1, 2호선 노동조합 상담.가입 광고



대구에 계시는 독자 여러분, 지하철에서 이 광고 한 번쯤 보셨어요?
 민주노총 대구본부, 금속노조 대구지부가 2020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구 지하철 1, 2호선 전체 380개 차량 중 190개 차량 1칸당 1개씩 광고를 했습니다. 노동조합 FLEX~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노동조합 상담.가입 광고



이번에는 서울, 인천입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차량에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위와 같은 광고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계시는 독자 여러분을 지켜주는 노동조합,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경기 반월시화공단 진입 노선버스 노동조합 상담.가입 광고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가 반월시화공단을 다니는 버스 140대에 위와 같은 광고를 3월까지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 버스 광고를 찍어서 카카오톡 채널 '공단노조' 1:1 채팅방에 보내면 열 명을 뽑아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을 보내준대요!

월간 <기장사람들>에 노동조합 상담.가입 광고

노동법 무료상담, 노동조합 가입문의
727-8977
 카톡 kctudbs8977
 주소 :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구연로 36 2층

당신의 회사는 안녕하십니까?
 노조가 있으면 유급휴업, 없으면 무급휴직
 노조가 있으면 고용보장, 없으면 정리해고
지금이야말로 노조가 필요합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임금삭감, 강제연차, 무급휴업(휴직), 사직강요, 정리해고 대우행
코로나 직장감염, 노동조합만이 해결

금속노조 - 전국 370개 사업장 185,000명 가입
 민주노총 - 전국 3200개 사업장 1,014,845명 가입

금속노조 동부산지회 · 민주노총 동부산상당소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동부산지회가 기장군이 발행하는 월간신문 <기장사람들>에 위와 같은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내 모든 가구에 전달하는 신문이에요. 부산의 독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러운 기숙사비 인상, 금속노조와 함께 해결했어요

부산 미얀마 이주노동자, 금속노조 개별가입해 임금 올리고 단체협약 체결해

부산시 사하구의 유아용품 제조업체인 중모토이플러스와 장난감하우스에서 일하는 미얀마 노동자들은 1인 7만 원이던 기숙사비를 갑자기 15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회사의 방침에 당황했습니다. 상습 임금체불에 점심조차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열악한 기숙사 시설을 개선하기는커녕 두 배 넘게 기숙사비를 인상하겠다고 일방

통보한 탓이었습니다. 미얀마 노동자들은 매주 일요일에 진행되는 녹산공단 한국어교실에서 만난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서부산지회와 상담을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 이주노동자까지 모두 여섯 명이 금속노조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벌인 1차 교섭 직후 사업주와 관리자

들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미얀마 노동자들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와 사업장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몇 차례 교섭 끝에 지난 2월 4일 중모토이플러스, 장난감하우스와 금속노조는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청년노동자 여섯 명은 왜 실명했는가

[노동안전 칼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파견노동자와 산업재해

인터넷에 ‘공장알바’라고 검색하면 일자리 정보가 우수수 쏟아집니다. 알바사이트나 인력업체의 알바모집 글을 보면 아이스크림 공장, 빵 공장부터 의료기기, 금속가공업체까지 일자리도 다양합니다. 코로나 19 유행 이후 마스크 공장 알바도 많이 보이네요.

공장 알바 후기를 보면 단순반복 작업의 지루함을 호소하는 글부터 ‘이런 공장은 절대로 가지 마라’ 같은 알바 선배들의 깨알 조언까지 다양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공장 알바는 몸은 힘들지만, 임금이 세서 좋은 일자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보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저 후기처럼 수시로 시계를 보며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이런 시간을 쌓아가며 하루하루 버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공장 알바를 통해 스마트폰 부품 공장에 들어간 20~30대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부천 공단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발생한 지 몇 해가 지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현재진행형이라고 하는지 짚어 보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년 전 여섯 명의 노동자가 각기 다른 공장에서 비슷한 시기에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통점은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공장들이었고, 쓰러진 분들은 기계에서 생산된 부품을 용액으로 씻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쉬운 일이라고 알고 있었고, 인터넷 알바사이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자리였습니다.

세척 용액은 메탄올이었습니다. 메탄올은 에탄올보다 싸지만, 독성이 강해서 보호 장구 없이는 사용하면 안 되는 유해물질입니다. 세척액으로 메탄올을 사용하는 일은 상식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가을에서 겨울까지 날이 추워 창문을 푹푹 닫은 공장 안에서 메탄올 액이 자연스레 몸에 닿고, 메탄올 수증기를 맡으며 일했습니다. 그렇게 세 개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쓰러졌습니다.

일한 지 몇 개월이 된 분도 있었지만, 나흘 만에 쓰러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메탄올 중독의 가장 큰 증상은 ‘시각 손상’이라고 합니다. 쓰러진 여섯 명의 노동자들은 시력을 잃었습니

다. 메탄올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뇌와 신경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20~30대 청년 여섯 명에게 일어난 실명 사건에 한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일하던 하청회사는 물론이고, 원청기업인 삼성, LG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고, 피해노동자들은 UN인권이사회에서 한국 대기업의 책임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메탄올로 인한 노동자 실명 사건이 발생한 공장에서 사용하던 메탄올 용액.



한 노동자가 실명 후 일하던 공장에 찾아 갔다.

여기서 한 곳이 더 등장합니다. 알바를 모집해서 공장에 보낸 파견업체입니다. 파견업체는 알바를 모아 공장에 보내면서도 막상 그 공장의 작업환경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용한 당사자이지만 일할 공장을 중개해주면 그만입니다. 공장의 환경이 어떤지, 어떤 물질을 쓰는 공정인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장은 공장대로 인력업체를 통해서 받은 사람이니 우리 직원이라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력을 파견한 업체 파견사업주와 하청 공장 사장인 사용사업주들은 1년 6개월~3년 정도의 징역과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 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감옥에 간 사람은 없습니다. 원청 회사인 삼성, LG는 사회적 비난은 받았지만, 법

률상 책임은 지지 않았습니다.

청년노동자 여섯 명의 실명 사건이 벌어지고 한참 후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1년 전에 똑같은 사건이 안산 공단에서 일어났으며, 이때 실명한 중국 동포 노동자는 조용히 한국을 떠났다고 합니다. 당시 인력 파견업체와 공장이 수사를 받았는지 정부는 기록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떠들지 않으니 조용히 덮인 겁니다. 만약 당시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고 정부가 감독해 제대로 조치를 했다면 1년 후 여섯 명의 실명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섯 명의 메탄올 실명 노동자의 이야기를 파헤친 『실명의 이유』라는 책이 나오고 『문밖의 사람들』이라는 만화책이 나왔지만, 피해당사자들은 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은 어떤가요? 이 글을 읽으며 남의 회사 얘기가 아니라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분도 있겠고, 현장이 썩 쾌적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내 일이 바빠서 관심 둘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늦기 전에 내 현장을 둘러봅시다. 그렇게 나와 내 동료, 우리 현장을 보다 건강하게 바꿔 갑시다.

전수경 _ <노동건강연대>

꿀팁

슬기로운 회사생활

- 01** 옆자리 동료와 회사의 근무 환경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봅시다. ‘나만 그렇게 느꼈던 게 아니구나’, ‘나만 이런 증상이 있던 게 아니구나’라며 전에 보이지 않던 문제가 보입니다.
- 02** 회사에 MSDS(Materials Safety Data Sheet)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내가 일하는 현장에 어떤 유해물질이 있는지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아프거나 사건이 발생하고 알면 늦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메모한 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내가 쓰는 물질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합니다.
- 03** 일하다 힘들거나 이상한 점이 보이면 반드시 메모·녹음·촬영하세요.

자동차 산업 거대한 전환, 금속노조와 준비합시다

[산업이슈 칼럼] 금속노조, '노동 참여 보장 정의로운 산업전환 쟁취'를 핵심 요구로 내걸어

자동차 산업은 어느덧 130살을 훌쩍 넘었습니다. 최초의 자동차는 1769년 프랑스 장교 퀴노의 증기자동차지만, 본격으로 산업화한 건 카를 벤츠가 모토바겐(motorwagen)을 만든 1885년입니다. 같은 시기, 고틀리에프 다임러와 빌헬름 마이바흐가 '말 없는 마차'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바야흐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대가 활짝 열립니다. 갑자기 왜 자동차 산업의 나이를 세고 있나요? 지금, 130년 남짓한 자동차 산업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전환 1, 자동차의 변화

먼저 자동차 자체가 바뀝니다. 기후위기에 따라 새로운 구동장치를 장착한 친환경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시스템, 전기모터와 전자기기 등 전장품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발전의 장애물이던 연비(전비)와 주행거리를 개선하기 위한 차체와 새시 경량화 연구가 활발합니다. 디지털화-네트워크화가 핵심인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커넥티드-카(connected car)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car-to-web), 자동차 간 연결(car-to-car), 교통상황이나 모바일 상거래 등 인프라 연결(car-to-infrastructure)이 전방위로 벌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요구하는 기술과 숙련을 키우지 못하면 기존 자동차 업계가 단순한 제품생산자로 머물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환 2, 자동차 생산 공정의 변화

자동차를 만드는 공정이 크게 바뀝니다. 다양한 요구에 따른 제품에 대응하기 위해 모듈화와 플랫폼 전략이 더욱 가속화합니다. 개발, 계획, 생산, 구매,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하청업체가 생산한 조립부품 모듈을 공통 플랫폼 위에 조립해서 차를 완성하는 공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런 방식으로 4백만 대 이상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모든 프로세스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스마트공장이 발전합니다. 제조 과정에서 인간과 기계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합



130년 자동차 산업 역사에서 전례 없는 전환은 노동자에게 위협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거대한 전환의 파고를 노동자 개인이나 개별 기업이 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최대 제조업 산업별노조인 금속노조와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듭시다. <자료사진>

니다. 원청과 하청의 데이터도 모두 연결합니다. 이에 따라 기술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고 중간 숙련 일자리가 사라져 고속력과 저숙련이 분리되는 노동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큼니다.

전환 3, 자동차 시장의 변화

자동차 시장이 완전히 재편될 것입니다. 기존 전통의 강자들 폭스바겐, 다임러 벤츠, GM, 도요타에 도전하는 전기차 신형 강자들 테슬라, 카누, 어라이벌이 있습니다. 전기차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기술기반 스타트업들입니다. 기존 IT 강자들도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율주행 기술을 앞세워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구글의 웨이모, 아마존의 죽스, 애플의 애플 카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 카카오모빌리티, 그랩 등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플랫폼을 갖춘 기업들, 배터리와 전장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 LG, SK 등 글로벌 전자기업들도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이른바 자동차 춘추전국시대입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을 놓고 기존 자동차 산업 강호들이 빠른 변화를 통해 계속 강자의 지위를 지킬지, 도태되어 제조하청으로 전락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금속노조와 함께, 위기를 기회로

이런 거대한 변화에 따라 노동자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 나가는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기도 하고, 새로운 회사가 크게 성장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이 불안해지며, 휴업 또는 휴직을 강요받거나 과도한 초과노동이나 극단의 유연노동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완전히 달라질 새로운 생산방식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는 회사가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금속노조는 2021년 '노동의 참여를 보장한 정의로운 산업전환 쟁취'를 핵심 요구로 내걸고 산별노조 교섭과 투쟁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노조는 정부를 상대로 산업·업종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노조가 참여하는 산업전환을 협의하려고 합니다. 국회를 상대로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 제정 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런 교섭과 투쟁을 통해 일자리를 확보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재벌에 집중된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려 합니다.

130년 자동차 산업 역사에서 전례 없는 전환은 노동자에게 위협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거대한 전환의 파고를 노동자 개인이나 개별 기업이 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최대 제조업 산업별노조인 금속노조와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듭시다.